

# 편의점 간편식 ‘한 끼’로 거뜬… 알뜰족 몰린다

업계, 고품질·협업상품 앞세워 고물가 시대 고객 잡기  
아침·주말식사로 손색없어… 도시락·김밥 매출 ‘쑥쑥’  
밥맛·원재료 차별화… 스타세프 특식 메뉴 출시 경쟁도

고물가로 편의점 간편식이 ‘한 끼’ 대안으로 부상하자 업계가 할인과 품질 고급화, 협업 상품을 앞세워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편의점 간편식은 단순 간식이 아니라 아침 식사나 주말 한 끼를 대체하는 상품군으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며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접근성이 높은 도시락과 김밥, 삼각김밥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실제 매출 증가세도 뚜렷하다. 세븐일레븐의 올해 1~3월 삼각김밥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늘었고, 김밥과 도시락 매출도 각각 16%, 14% 증가했다. CU의 간편식 매출 역시 2023년 26.1%, 2024년 32.4%, 2025년 17.1% 증가하며 매년 두 자릿수 성

장세를 이어갔다. 올해 1분기 CU 간편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7% 늘었고, 지난달 주말 간편식 매출 증가율은 18.2%로 평일 증가율(10.0%)을 웃돌았다.

편의점 업계는 늘어나는 수요를 잡기 위해 가격과 품질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CU는 이달 한 달간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간편식 전 품목을 50% 할인하고, 주말에는 시간 제한 없이 반값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락과 김밥은 네이버페이 포인트·머니 결제 시 30%, 샌드위치와 샐러드는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시 40% 할인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부담을 낮췄다. 여기에 3000원대 ‘get모닝 꼬마김밥’ 2종을 새로 출시하며 아침 식사 수요 공략에도 나섰다.



최근 편의점 간편식은 단순 간식이 아니라 아침 식사나 주말 한 끼를 대체하는 상품군으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스카이드일리

상품의 본질 경쟁력 강화도 눈에 띈다. 세븐일레븐은 1년여 연구 끝에 냉장 상태에서 밥의 촉촉함과 찰기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한 ‘울 뉴 삼각김밥’을 선보였다. 세븐일레븐 인터내셔널, 롯데웰푸드, 롯데중앙연구소와 함께 진행한 ‘라이

스 프로젝트’를 통해 냉장밥 노화 방지와 수분 보존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향후 김밥과 초밥 등 다른 간편식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GS25는 김밥 전문점 수준의 맛 구현을 목표로 김밥 제품을 전면 리뉴얼했다. 밥

의 감칠맛을 높이기 위해 콩 추출물 기반 조미액을 적용하고 참깨와 참기름 사용량을 늘렸으며, 밥 비중을 줄이는 대신 토핑을 강화했다. 100% 국내산 쌀과 햇김을 사용하는 등 원재료 품질도 끌어올렸다.

이마트24 역시 김밥 전 상품을 ‘올바른 김밥’ 시리즈로 바꾸고 밥과 토핑 평균 중량을 약 11% 확대했으며, 다시마물로 지은 밥을 적용해 밥맛 개선에 나섰다.

프리미엄 전략도 강화되고 있다. 이마트24는 스타 세프 협업을 통해 제육모듬쌈 밥정식, 중화잡채김밥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고, 세븐일레븐은 정호영 셰프 협업 상품군을 라면에서 도시락과 김밥으로 확장했다. GS25는 ‘이달의 도시락’ 시리즈와 ‘해자로운 디저트’ 라인업을 확대하며 식사 대용 수요 흡수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편의점 간편식 경쟁이 단순 할인전에서 맛과 품질, 기술력을 겨루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고물가로 한 끼를 편의점에서 해결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예전처럼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맛과 품질까지 따지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높아진 기대에 맞춰 편의점들도 밥맛과 원재료, 상품 차별화에 더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 농심, 러시아 법인 설립… 유라시아 공략 속도

6월 모스크바에 ‘농심 러시아’ 출범… “2030년 매출 3000만 달러 목표”

농심이 유럽에 이어 러시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며 글로벌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러시아 라면 시장의 성장세와 한류 확산을 발판으로 현지 판매망을 강화하고, 향후 CIS(독립국가연합) 지역까지 아우르는 유라시아 시장 공략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농심은 오는 6월 러시아 모스크바에 현지 판매법인 ‘농심 러시아(Nongshim Russia LLC)’를 설립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3월 네덜란드에 유럽 법인을 세운 데 이어 약 1년 3개월 만에 신규 해외 법인을 추가하는 것이다.

회사는 이번 러시아 법인 설립을 통해 현지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CIS 주요 국가로의 사업 확장 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농심이 러시아에 주목한 배경에는 현지 라면 시장의 높은 성장성이 있다. 회사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조사기업 유로모니터

는 러시아 라면 시장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0%대 성장세를 이어가며 약 10억5000만 달러(1조5000억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류 확산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산 라면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25년 러시아의 한국 라면 수입액은 5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농심은 현지 시장에서 중저가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만큼, 프리미엄 라면 시장을 중심으로 차별화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신라면을 비롯해 너구리, 감치라면 등 기존 주력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신라면 톰바, 신라면 감치볶음면 등 신제품도 빠르게 선보여 소비자 선택지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유통망 확대에도 나선다. 농심은 러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대형 유통 체인인 X5와 마그니트(Magnit) 등을 중심으로 제품 입점을 확대하고, 지역별 핵심 유통망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동시에 오존(Ozon), 와일드베리즈(Wildberries) 등 현지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에 공식 브랜드관을 구축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판매 전략을 추진한다.

제품 공급은 올 하반기 완공 예정인 부산 녹산 수출전용공장이 맡는다. 농심은 해당 공장을 기반으로 수출 물량 대응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요충지이자 라면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는 시장”이라며 “러시아 법인을 통해 러시아는 물론 CIS 지역까지 사업 영토를 확장해 2030년까지 법인 매출 3000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 한국AZ, 테즈파이어 국내 출시

천식·만성 비부비동염 치료제 신약



아스트라제네카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테즈파이어를 국내 출시하며 호흡기 질환 치료영역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8일 중증 천식 및 비용종을 동반한 만성 비부비동염 추가 유지 치료제 테즈파이어(테제펠루맙)를 국내 출시했다고 밝혔다.

출시와 함께 기존 천식 적응증에 이어 성인에서 기존 치료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비용종 동반 만성 비부비동염의 추가 유지 치료 적응증도 확대했다.

테즈파이어 출시로 회사는 기존 호산구성 중증 천식 치료제 파센라(Fasenra/벤라리주맙 benralizumab)에 더해 항-TSLP(흉선 기질상 림포포이에틴) 계열 치료용선까지 확보하게 됐다. 추가적으로 비용종 동반 만성 비부비동염까지 적응증을 넓히며 단일 품목의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

테즈파이어는 TSLP를 표적하는 최초

의 단일클론항체다.

염증 반응의 상류를 조절하는 기전으로 기존 치료에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12세 이상 중증 천식 환자의 추가 유지 치료제로 2023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올해에는 3월 비용종 동반 성인 만성 비부비동염 적응증이 추가됐다.

적응증 확대는 글로벌 3상 WAYPOINT이 기반이다. 투약 52주차에 테즈파이어 투여군은 위약군과 비교해 용종의 크기와 범위를 평가하는 비용종 점수(Nasal Polyp Score, NPS)가 2.07 감소했고, 코막힘을 평가하는 비강 울혈 점수(Nasal Congestion Score, NCS)는 1.03 감소했다. 각각 치료 4주차와 2주차부터 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52주차까지 지속됐다.

수술 및 스테로이드 사용 감소 효과도 제시됐다. 비용종 제거 수술 필요성은 테

제펠루맙 투여군 0.5%, 위약군 22.1%였고, 전신 스테로이드 사용 필요성은 각각 5.2%, 18.3%로 나타났다.

김지영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호흡기사업부 전무는 “테즈파이어가 지난해 10월 미국 FDA에서 비용종을 동반한 만성 비부비동염 추가 유지 치료제로서 적응증 승인을 받은 데 이어, 한국에서도 적응증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글로벌 임상시험을 통해 테즈파이어가 천식뿐만 아니라 비용종을 동반한 만성 비부비동염 환자에게도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을 이 확인된 만큼 호흡기 질환 환자들의 질환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경준 기자 gjju@skyedaily.com

비쁜 일상 속, 당신을 토닥여줄 요가 에세이

# 느려도 괜찮아

아사나(요가 자세)를 할 때 찾아오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아팠지만 몸을 늘리고 비틀고 거꾸로 서는 과정에서 마음이 말을 걸었다.

너무 애쓰지 마라.

괜찮다.

일만 하지 말고 좋아하는 것도 하고 살아라.

한영임 지음 | 272쪽 | 15,000원 | 도서출판행복에너지